

디지털 농식품 푸드테크 산업 육성

전북자치도, 농식품·정보통신기관 업무협약 체결 농식품산업에 데이터·AI 등 디지털기술 적용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가 농식품·정보통신 기관과 손을 맞잡고 디지털 농식품(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 전북특별자치도청 회의실에서 익산시(정현을 시장),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이승

돈 원장), 한국식품연구원(백형희 원장),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김영재 이사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방승찬 원장), 전북테크노파크(이규택 원장)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4차 산업시대를 맞아 농식품기관,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기관과 농식품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

두고 푸드테크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함으로, △농식품산업의 디지털 전환 △농식품산업(푸드테크) 디지털 플랫폼 구축 △푸드테크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발굴 △공공연구,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식품기관의 농식품 데이터 표준화와 빅데이터 수집을 통해 '식품제조·가공 디지털 메타버스 플랫폼 실증'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국가 과학기술분야를 선도하는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기관으로 기존에 연구한 '제조 디지털 트윈 기술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푸드테크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전북테크노파크와 함께 지역 ICT/SW 기업의 육성 및 역량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의 농식품 인프라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협업해 미래 먹거리 산업인 디지털농식품(푸드테크) 산업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익산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식품 디지털 전환을 통해 식품기업과 지역 ICT/SW기업이 함께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지난 23일 전북자치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디지털 농식품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 김관영 도지사와 정현을 익산시장, 강성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원장, 윤동진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부장, 백형희 한국식품연구원장, 김지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기획실장,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원장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투어버스, 3월 1일 첫 운행

전북현대 홈경기 연계 스포츠 관광상품 선보여

전북특별자치도가 관광명소를 테마관광상품으로 운영해 도내 관광지의 접근성을 높이고 편의제공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3월부터 투어버스를 본격적으로 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투어버스 상품으로 전북현대 홈경기시 수도권 및 충청권에서 오는 서포터즈를 대상으로 관광지와 홈경기를 연계한 스포츠 관광상품을 구성하여 3월 1일 개막전부터 9월까지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출시되는 스포츠 관광상품은 오전 10시까지 익산역에 모이면 전담 해설사와 함께 전용 버스를 타고 △전주한옥마을 △익산 미륵사지 & 국립박물관 △완주 삼례문화예술촌 등 인근 지역 관광지를 둘러본 후 전주월드컵경기장에 도착하여 전북현대 홈경기를 관람하고 다시 익산역에 도착하는 코스로 구성되어 있어 전북자치도를 방문하는 서포터즈의 교통 편의와 관광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

상품은 전북현대모터스 주말 홈경기를 대상으로 총 13번 운행할 예정이며 탑승가격은 1만원(12세 이하, 장애인, 경로는 9,000원)이다.

3월 1일 전북현대 홈경기 개막전 스포츠 관광상품은 여행관광 홈페이지(www.tour08.co.kr)에서 이달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예매가 가능하며, 이외에 전북현대모터스 주말 홈경기 연계 스포츠 관광상품을 비롯한 유형별 관광상품은 탑승 3일 전까지 전북특별자치도 투어버스 홈페이지(www.jbtour.or.kr)를 통해서 예매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스포츠 관광상품은 인근 지역 관광지와 전북현대모터스 경기장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상품으로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서는 전북현대모터스 홈페이지(https://hyundai-motorsfc.com/)에서 입장권을 사전에 개별 구매하여야 경기장에 입장할 수 있다.

이남섭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스포츠 관광상품 출시로 우리도 지역 관광지를 둘러보는 동시에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되는 전북현대모터스 홈경기를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항후 운영되는 도내 14개 시군의 주요 관광지를 한번에 둘러볼 수 있는 투어버스 전용 관광상품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자치도, 시군과 함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박차

도-시군 협력회의 개최... 2025년 지방소멸기금 최대 확보 노력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3일, 도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에 해당하는 11개 시군과 함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을 제고하기 위한 신속집행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민생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군별 기금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시군과 함께 집행을 제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주관부처인 행안부는 오는 8월 30일까지 집행을 50%

이상을 목표로 기금 평가기준에 반영하는 등 기금 집행을 독려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기금 50%이상 집행을 목표로 시군과 소통하며 집행상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작년 10월말 기준 18%였던 시군 기금 집행률은 올해 1월말 기준 34%로 향상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집행률이 높은 시군의 전략 등을 공유하는 한편, 신속 집행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논의함으로써 전반적인 시

군 집행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수군은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과 풀벌 6차산업단지 조성 등 2개년째 걸린 하드웨어 구축사업을 집행 완료했으며, 익산시는 로컬창업스쿨 및 주거사다리 구축 등 소프트웨어 사업을 통해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도는 지속적으로 기존 시군 기금사업을 집중·관리하는 한편, 신규사업의 경우 행정 사전절차 적기 이행 등 사업 초기부터 철저히 관리하여 신속 집행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며, 집행률이 우수한 시군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

다. 아울러, 행안부 2025년 시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등급 향상과 기금 최대 확보를 위해 평가일정에 맞춰 시군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군 소통을 강화하고, 외부기관을 통한 시군별 기금 투자계획 컨설팅 지원도 추진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많은 사업들이 올해부터 공사가 시작되고,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시군과 효과적으로 기금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자치도, 상반기 청년 직무인턴 150명 수료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운영한 '2024년 상반기 전북 청년 직무인턴' 사업에 청년 152명이 참여했고 최종 150명이 수료했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전북 청년 직무인턴'은 청년이 도내 공공기관·기업 내에서 직무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본인의 적성과 전공에 부합하는 참여기관·기업을 선택해 인턴십을 실시하는 사업이며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다.

인턴십 마지막 날인 지난 23일 진행된 직무인턴 온라인 수료식은 150명의 수료자가 참여했으며, 일경험 사업, 구직 사업 안내 등 사후관리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안내하며, 비대면 소통 간담회, 폐회식 순으로 약 2시간 가량 진행됐다.

2024년 전북 청년 직무인턴 사업은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지원대상을 도내 청년(만18~39세)으로 확대해 참여자를 모집했으며, 총 781명의 신청자가 지원하며 평균 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년들에게는 인턴십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교육을 실시했으며, 직무인턴 참여자 대상으로 총 2회에 걸친 직무 교육을 통해 취업, 면접 및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등을 주제로 교육하며 취업역량을 강화했다.

이번 과정을 수료한 인턴들은 "원하는 기업을 선택해서 직접 실무체험을 해보니 향후 진로선택에 큰 도움이 된 것 같다"며, "업무능력 외에도 조직생활과 사회경험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세창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전북 청년 직무인턴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실무 경험 제공, 취업역량 강화와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직무체험을 통해 생생한 직장생활을 경험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인재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자치도 방역당국, 가축질병 청정화 유지 방역사업 설명회

전북특별자치도 방역당국은 지난 23일 오후 2시 가축전염병 유입방지 및 발생 최소화를 목표로 방역사업의 내실화하기 위해 시군 방역부서를 대상으로 2024년 가축방역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도는 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브루셀라병 등 비발생 유지, 렙피스킨·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조기종식의 성과를 공유했다.

소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방역을 강화해 축산물의 공

중위생 향상을 위해 국가사업 및 지자체사업 6개 분야 79개 사업 512만 두·수·개·건에 863억원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 국가사업은 5억700만 두·수·개·건에 750억원, 국가사업에서 부족한 부분에 도 자체사업은 400만 두·수·개·건에 113억원을 지원한다.

김중훈 경제부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발과 함께 기본에 충실한 가축방역체계가 중요하다"며, "사업취지와 목적에 적합한 가축방역사업으로 성공적인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정착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